

사람들의 가슴을 미여지게 하는 아동절



지난 6 월 1 일, 사천도강언 500 여명 학부형들은 저마다 자녀의 유상을 들고 신건소 학교 운동장에 모여 지진에 조난당

한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공정성을 찾겠다고 다짐했으며 마지막 아동절을 보냈다 (윗사진)

한 어머니는 아들의 유상을 보며 <애야 넌 정말 억울하게 죽었구나!>하고 비분에 찬 어조로 말했다. 또 다른 한 어머니는 <몇년전에 우리들은 기부금활동을 벌려 모은 돈으로 이 학교를 다시 짓자고 건의했지만 학교지도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았기에 오늘 내 딸도 죽게 되었다오.>하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다.



중앙텔레비전에서 보다시피 저질 재료로 대충 지은 중소학교 건물들은 이번 지진으로 거의다 무너져 어린이들이 무리죽

음을 당했지만 튼튼하게 지은 당정사무청사는 조금도 끄덕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었다.(윗 사진) 초보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번 지진에서 근 2 만명 어린이들이 죽었는데 총 사망수의 4 분의 1 을 차지한다.

문거니 어찌하여 이번지진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죽게 되었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30 년대 사천성 주석 류문휘는 <만약 현정부의 집이 학교보다 좋다면 현장을 사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아래 왼쪽 사진은 30 년대 사천성 덕격현 소학교이고 아래 오른쪽 사진은 30 년대

사천성 의돈현 현정부이다. 만일 중공관리들이 70 년전의 한 지방군벌처럼 엄하게 탐관오리들을 다스리고 교육을 중히 여겼다면 아마 이번 지진에서 어린이들은 이처럼 비참한 재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12 년이래 정부에서 매년 투자한 교육경비가 점한 국민총수입의 비례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우간다보다 적어 세계에서 마지막 3 번째이다. 《염황춘추》기재에 의하면 중공은 매년 공금차소비에 4000 억원,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데 3000 억원, 출국소비에 3000 억원 도합 10000 억이나 된다. 이 소비를 절반만 감소하였더라도 어린이들의 교사를 잘 지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지난날 매년 <6.1 아동절>이 오면 중앙텔레비존에서는 “조국의 꽃봉오리들이 당의 배려하에 건실히 자란다.” 는 소식보도가 가득 실렸지만 오늘날 6.1 절은 수만떨기 꽃송이가 생죽음 당한 제사날로 되었다.

<3 개대표>의 허울을 쓴 중공악당은 이번 지진구제에서 <생명의 은인>으로 분장하고 나섰지만 그의 사악한 본질은 전혀 개변되지 않았으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멸망의 운명을 절대 만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루속히 중공조직에서 탈리하여 평안을 확보하고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명한 선택이다.

미국 플러싱 중국성에서 집회를 열어 중공의 폭력을 견책

지난 5 월 31 일, 1000 명의 플러싱 파룬궁 학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미국 뉴욕 플러싱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중공이 파룬궁 학원들을 포위공격한 죄행을 강력히 견책했다. (옆 사진)



30년대四川의德格县的小学(左)和义敦县县政府(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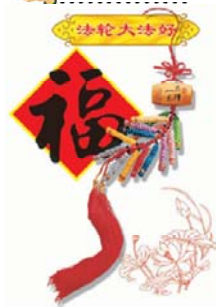


진상을 알리는 스위스 고대 도시



지난 5월 31일 파룬궁학원들은 중세기문명색채가 짙은 고대성시 넷싸탈 중심 거리에 진상부스를 차려놓고 파룬궁진상을 널리 알렸다.

인간신화



“3 퇴”하니 복을 받다

평주시 룡풍진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은 지난 설직전에 “3 퇴”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를 탈퇴)를 했다. 지난 3월 12일 오후 그는 통제 4 조에서 석회를 싣고 트랙터를 몰고 산정상에서 산 아래로 내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산과 땅이 흔들리더니 땅이 갈라져 넓이 1미터가 넘는 틈이 생겼다. 차바퀴가 갈라진 틈새로 들어가려는 순간 갈라졌던 땅이 맞붙었다. 이리하여 그는 죽음에서 살아났다. 집에 돌아온 그는 <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리라곤 생각조차 못했다. 나를 구해준 대법사부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감격하여 말했다.

인간신화

셋째 이모집에서의 기적

지난해 셋째이모는 나의 어머니한테서 파룬궁 진상을 듣고 매일 <파룬따파가 좋다.> <쩐, 썬, 런이 좋다.>고 묵념했더니 허약했던 몸이 점점 좋아져서 밭에 나가 일해도 힘든줄 몰랐다.

이번 문천지진에서 셋째이모의 마을은 피해가 심하여 대부분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했다. 하지만 셋째 이모네 허술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아무런 손실이 없었으며 돼지굴은 허물어 졌지만 어미돼지는 무사했으며 이틀후 폐허속에서 파낸 갓난 새끼돼지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셋째이모집에서 일어난 이 기적적인 사실은 <파룬따파가 좋다.>, <쩐, 썬, 런이 좋다.>라고 묵념하면 생명을 확보할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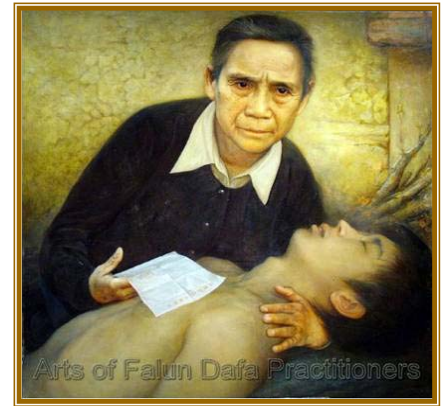


병보석

화가: 대법제자 동석강(董锡强)

그림중의 로인은 병보석통지를 받고 박해를 받아 생명이 위독해진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을 껴안은 로인의 두눈에는 탄압에 대한 비참한 분위기와 대법에 대한 견정함이 묻어있다.



박해로 세상을 뜬 파룬궁학원 최광영

최광영(崔光泳)은 왕청현동신향 전각루촌의 회계였다. 1996년에 그는 파룬따파를 수련한후 신체가 건강해졌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사람들의 믿음을 받았다.

1999년 7월에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후 공안부문에서는 그에게 압력을 가하여 련공하지 못하게 했으며 촌지도 부에서는 그를 핍박하여 회계사업을 정지시켰다. 그는 선후로 2차례 불법적으로 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았고 악경들에게 수천원의 돈과 재물을 갈취당했다.

2007년 10월에 왕청현공안국 악경들이 그를 강제로 체포하여 또다시 로교소에 갇아넣었다. 모진 혹형과 시달림에 거의 죽게 된 그는 병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온후 지난 5월 29일에 38세의 젊은 나이로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났다.

최광영의 억울한 죽음은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분개를 자아냈다. 중공악당은 좋은 사람을 죽였으니 어찌 하늘이 용서할수 있겠는가?



연변박해소식

■ 연길시북산소학교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교정에 파룬궁을 모욕하는 선전란을 꾸러 학생들을 해치고 있다.

가진(賈珍): 연길시북산소학교 교장: 2917272

리대의(李大义): 연길시북산소학교 부교장: 2917270